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아홉 번째

이사야의 마지막 예언적 서사: 그리스도의 계시와 144,000의 예언적 역할

Jeff Pippenger

2023-11-01

이사야서, 특히 40장부터 6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마지막 예언적 서사는 우리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의 종결에 다가감에 따라 이제 봉인이 풀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직접 연결된 몇 가지 중요한 예언적 진리를 강조하여 제시한다. 그 진리들 가운데 하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계시이다. 성경의 다른 어떤 책도,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과 함께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그 측면에 대한 이사야의 증언에 견줄 수 없다.

누가 이를 이루고 행하며, 처음부터 대대들을 불러오신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라, 처음이요 또 마지막과 함께 있는 자니,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1:4.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신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그들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내가 옛 백성을 세운 이래로, 누가 나와 같이 부르고 선포하며, 나를 위해 그것을 질서 있게 제시하겠느냐? 장차 올 일들과 앞으로 있을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너희에게 말하고 그것을 선언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바로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정녕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그런 자를 알지 못한다. 이사야 44:6-8.

이사야의 마지막 예언적 서술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의 오심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성취를 강조한다.

의를 따르는 자들아, 주를 구하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깎여 나온 반석과 너희가 파여 나온 구덩이를 바라보라. 너희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바라보라.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번성하게 하였느니라. 주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리니, 그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고, 그의 광야를 에덴 같게, 그의 사막을 주의 동산 같게 하시리라.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며, 감사와 노랫소리가 들리리라. 이사야 51:1-3.

위로자는 2023년 7월에 도착했다. 이사야의 서술에서 강조되는 또 다른 진리는 일곱 천둥의 숨겨진 세 단계의 역사인데, 그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열세 번째, 마지막 글자로 구성된 히브리어 단어 'emeth'의 구조다.

성읍에서 들려오는 소란한 소리,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주의 음성. 이사야 66:6.

이사야서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일요일 준수 강제법의 통과로 인해 하나님의 집행 심판이 먼저 미국에, 이어 세계에 임할 때 그 도구로서 이슬람이 맡게 될 역할이다.

분량대로, 그것이 싹이 돌아날 때, 네가 그것과 변론하리라; 그는 동풍의 날에 그의 거친 바람을 억제하시느니라. 이사야 27:8

이 모든 진리는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메시지의 구성 요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열 처녀의 비유로 표현되는,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시고 예수께서 가브리엘에게 주시고 가브리엘이 요한에게 전하여 요한이 기록해 교회들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메시지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시작되는 예언적 사건의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야의 마지막 서사를 사용해 왔고, 이제 12장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이사야가 매우 경고하게 뒷받침한 상징으로 묘사된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의 끝을 그 시작을 통해 보여 주신다.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다. 해를 입은 한 여인이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으며, 그 머리에는 열두 개의 별로 된 왕관이 있었다. 그 여인은 아이를 뱀 채 해산하려고 아파서 울부짖었다. 또 하늘에 다른 표적이 나타났는데,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의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리고 그 용은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서, 아이가 낳기만 하면 삼키려 하였다. 그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였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그의 보좌로 들려 올라갔다. 요한계시록 12:1-5.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인은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상징한다. 고대 문자적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 열두 지파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던 때, 곧 고대 문자적 이스라엘의 끝을 예표한다. 고대 문자적 이스라엘의 끝에 있던 그 열두 제자는 현대 영적 이스라엘의 시작에서 열두 사도가 되었다. 시작의 두 증인과 끝의 한 증인이 합쳐져, 14만 4천을 현대 영적 이스라엘의 종결로 지목하는 세 증인을 이룬다.

십사만 사천은 또한 그들의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표징이다. 그들은 표징인데,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 큰 성의 거리에 누워 있던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되었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살해되었다. 그들은 표징으로서, 여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의 보석들이다.

그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처럼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 위에 기치처럼 높이 들려질 것이기 때문이라. 스가랴 9:16.

그 깃발, 즉 십사만 사천은 돌이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던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4.

그리스도는 십사만 사천을 예표하며,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버림받은 "산 돌"이라는 점에 대해 바울과 뜻을 같이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역시 "산 돌들"임을 밝혔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영적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4, 5.

십사만 사천은 여자의 왕관의 보석들일 뿐만 아니라, 왕관 그 자체다.

시온을 위하여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는 쉬지 아니하리니, 그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그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드러날 때까지라. 열방이 네 의를 보고,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와 그의 입이 지어 주실 새 이름으로 네가 불리리라. 너는 또 여호와와 그의 손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 네 하나님 손에 있는 왕의 관이 될 것이라. 이사야 62:1-3.

그리스도는 십사만 사천을 예표하신다. 그는 반석이시고, 그들은 "돌들"이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있는 영광의 관"이며, 그리스도는 영광의 관이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며,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의 영이 되시며, 싸움을 성문으로 되돌리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이사야 28:5, 6.

시작과 끝의 맥락에서 열두라는 숫자를 고려할 때, 그 여인은 시내산에서의 고대 이스라엘의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부터 십사만 사천의 역사에 이르기까지를 대표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예표되어 왔고, 그의 탄생은 2020년 7월 18일 그들이 살해되었던 거리에서의 죽은 마른 뼈들의 부활을 예표했다. 그 두 선지자를 살아나게 하는 이 두 단계 과정은 에스겔 37장이 매우 간결하게 지적하며, 그에 대한 '처음 언급'은 아담의 창조에서 찾아진다.

아담은 두 단계로 창조되었다. 그는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다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는 에스겔에서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가 마른 뼈들을 살린 것과 같다. 아담은 완전히 성숙한 남자로 창조되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창조는 곧 그의 탄생이었다. 십사만 사천은 죽음의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거리에서 시체로 누워 있는 상징적 삼일 반이 지난 후에 태어난다. 십사만 사천은 '철장으로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은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역사 전체에 걸친 교회의 상징으로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 다니엘서 2장의 '산'과 같은 상징성을 지닌다.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이지만, 또한 열린 책이다. 그것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교훈은 신비적이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 그 안에서는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예언의 맥이 이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몇몇 예언을 반복하심으로써 그것들에 중요성을 두어야 함을 보여 주셨다. 주께서는 큰 중요성이 없는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신다." 원고 발표집, 제9권, 8쪽.

다니엘서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예언의 흐름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어진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여 나온 다니엘의 돌은 베드로의 "살아 있는 돌들"이고, 그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직"이며, 다니엘의 돌은 또한 십사만 사천을 나타낸다. 그 산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교회다.

이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니,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는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산산이 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왕께서 보신 대로 그

돌은 사람의 손을 쓰지 않고 산에서 깎여 나왔고,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이 부수었다. 크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 꿈은 확실하고 그 해석은 분명하다. 다니엘서 2:44, 45.

십사만 사천의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는 또한 늦은 비로도 상징되며, 바로 늦은 비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돌이 상징하는 나라를 '세우신다'.

늦은 비는 정결한 자들에게 임하고 있으니—그때에는 모두가 예전과 같이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천사들이 손을 놓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늦은비를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온 하늘이 그 일에 관심이 있다. 천사들도 관심이 있다." Spalding and Magan, 3.

이슬람의 네 바람은 주일법이 제정될 때 풀려나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 이 일은 다니엘서 2장의 영적 왕국들의 시대에 일어난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마지막 네 개의 영적 왕국은 처음 네 개의 역사적 왕국들로 예표되었다. 역사적 바벨론, 메대-바사, 그리스, 로마는 영적 바벨론, 메대-바사, 그리스, 로마를 대표한다.

영적 바벨론은 금 머리이며, 1798년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이 '일곱 때' 동안 일시적으로 권세에서 물러난 것으로 예표되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이 일곱에 속한 여덟째 왕국을 형성할 때, 그것은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우상으로 대표된 모든 영적 왕국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죽은 교황권과 부활한 교황권은 그 우상의 네 영적 왕국의 시작과 끝에서 영적인 금 머리이다. 네 왕국 중 둘째인 미국은 영적 메대-바사로, 네 왕국 중 셋째인 유엔은 영적 그리스로 대표되며, 이들이 함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을 이루어 일곱에 속한 여덟째 왕국을 세운다. 교황권은 적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를 모방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네 영적 왕국 가운데 교황권은 첫째이자 마지막이다.

산에서 뜨인 돌은 온 땅을 가득 채우는 나라가 되며, '이 왕들의 때'에 기치로 세워진다. 이는 그 형상의 모든 영적 왕국들이 '마지막 날들'에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기치를 들어 올리는 일,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이슬람의 네 바람이 풀려나고, 일요일 법령 때에 한량없이 늦은 비가 부어질 때 일어난다.

산에서 뜨인 돌은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지상의 모든 영적 왕국들을 산산이 부술 것이다. 십사만 사천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 그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내아이"이며, 그의 탄생은 십사만 사천의 탄생을 예표하였다. 그 "사내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 철장으로 그는 만국을 깨뜨릴 것이다.

내가 그 명령을 선포하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네 유업으로 주고, 땅 끝까지를 네 소유로 주겠다. 네가 쇠 지팡이로 그들을 부수며,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산산이 깨뜨리리라. 시편 2:7-9.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왜곡하여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한다. 'Begotten'은 '낳다'를 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결코 없었다는 것을 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어떤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외식으로 거짓을 말하며, 그 양심이 뜨거운 쇠불이로 지져져 화인을 맞으리라' 하셨다. 배도의 일이 마지막으로 전개되기 전에 신앙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에 관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견해가 없을 것이다. 한 진리 또 한 진리가 차례차례 변질될 것이다. '이의 없이 경건의 비밀은 크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어지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려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선재를 부인하여 그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그분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다. 시대의 징조, 1894년 5월 28일.

그리스도를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진리는 인간의 부모-자식 관계라는 틀에 억지로 끼워 넣으면 파괴되고 만다. 우리는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내리신 판단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대로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

약인은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며, 주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풍성히 사하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이 아니고, 너희의 길도 내 길이 아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55:7-9.

"'begotten'이라는 단어를 곡해하여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낳은 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현재 우리의 연구 목적을 위해, 나는 단지 요한계시록 열두 장의 여자가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해산하려 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다. 십사만 사천도 또한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일요일 법령 때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될 때 재등장한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기는 자들이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터이요, 토기장이의 그릇과 같이 그들이 산산이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으니라. 요한계시록 2:26, 27.

두아디라 교회의 마지막 나타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십사만 사천이다. 처음에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낳았고, 마지막에는 어린양을 따르는 십사만 사천을 낳는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마치 새 노래와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으니,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진 첫 열매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14:3, 4.

그리스도는 "처음"으로 태어나셨고, 14만 4천은 어린양을 따르므로 "마지막"으로 태어난다.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녀의 두 자녀 모두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라.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로 들려 올라갔다. 요한계시록 2:5.

만군의 주로서 그리스도는 또한 '야곱의 분깃'이시며,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팡이'이고, 이스라엘은 또한 그분의 '전투 도끼와' 그분의 '전쟁의 무기'로서 그분이 '민족들을 산산이 부수는' 데 사용하시는 존재이다.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팡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너는 나의 전쟁 도끼요 전쟁 무기라. 내가 너로 열국을 산산이 부수며, 너로 왕국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 51:19, 20.

그리스도와 십사만 사천 명은 모두 철장으로 열국을 다스리고 산산이 깨뜨린다. 그리스도는 "야곱의 분깃"이시지만, 그의 백성 또한 "야곱의 분깃"이다.

이는 여호와의 분깃이 그의 백성이며, 야곱은 그의 기업 가운데 제비 뽑힌 몫이다. 신명기 32:9.

산에서 깎아낸 돌, 곧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 돌은 그분의 영광으로 땅을 가득 채우는 그분의 교회의 최종적 나타남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전쟁 도끼로 사용하여 그 형상의 발을 치고 그 왕국들을 '여름 타작마당의 겨'로 만들게 하신다. 그 왕국들은 바람에 날려 사라진다.

그때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었고, 바람에 날려 자취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다. 다니엘 2:35.

여인의 상징을 하늘로 높이 들린 기치의 맥락 속에 두는 것이 필요했다. 이는 계시록 12장이 하늘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 전쟁의 시작을 밝히며, 그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종말을 가리키는 하늘의 전쟁 또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은 이 대쟁투의 최후 전쟁을 묘사하며, 사탄의 대표자들과 십사만 사천이 하늘에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 그것을 보여 준다.

다음 글에서는 태초에 시작된 하늘의 전쟁으로 예표된 "마지막 때"의 하늘의 전쟁을 다루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이 있는데, 어린양과 같은 두 뿔을 가졌으나 말하기는 용처럼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그 모든 권세를 행사하며, 치명적인

상처가 나왔던 그 첫째 짐승을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더라.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 위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은 그 표적들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말하여, 칼에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줄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하게도 하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며, 그 표나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누구든지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도다.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라. 요한계시록 13:11-18.